

중국 대형 국유기업의 高노동비용

1. 개요

- 2006년 7월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자산관리감독위원회(이하 ‘국자위’) 통계평가국은 ‘국자위’가 관리·감독하는 169개 대형국유기업의 2005년도 경영평가 ‘통계연보’를 발표함.
- ‘통계연보’에 따르면 전체 169개 기업의 총이윤 가운데 이윤 서열 상위 40개 기업이 95%, 상위 12개 기업이 78.8%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기업의 노동비용 지출이 큰 것으로 나타남.
- 이윤 서열 상위 40개 기업은 대부분 독점적 대형 국유기업임.
- 이에 대해 중국내 독점적 대형 국유기업의 이윤 독식 및 高노동비용 구조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증대하고 있음.
- 대형국유기업의 임금과 복지 등에 대한 고비용 지출은 중국 정부가 소득분배체계를 개혁하려는 현 시점에 중요한 개혁대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2. 대형국유기업에 대한 주요 경영평가

가. 수익성

□ 169개 대형국유기업의 2005년도 이윤총액은 6,276.5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27.9% 증가함. 전체 169개 기업 총이윤의 78.8%를 점유하는 12개 기업은 주로 석유, 석탄, 전기, 통신, 운수 관련 업종임.

- 국제유가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중국석유·천연가스그룹(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)과 중국 석유화학그룹(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)의 이윤은 각각 전년대비 46.1%, 27.6% 증가하였고 석탄기업인 신화그룹(神华集团有限责任公司)의 이윤도 전년대비 85% 증가함.

<표 1> 이윤 서열 상위 12개 대형국유기업

순위	기업명	이윤총액	
		2005년도 (억 위안)	전년대비 (%)
1	중국석유·천연가스그룹 (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)	1,756.1	46.1
2	중국이동통신그룹 (中国移动通信集团公司)	782.1	21.9
3	중국석유화학그룹 (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)	551.8	27.6
4	중국해양석유그룹 (中国海洋石油集团)	375.9	55.2
5	중국전신그룹 (中国电信集团公司)	338.6	3.8
6	신화그룹 (神华集团有限责任公司)	221.0	85.0
7	보강그룹 (宝钢集团有限公司)	220.5	0.5
8	중국원양운수그룹 (中国远洋运输集团)	200.4	64.2
9	중국여업회사 (中国铝业公司)	150.2	51.3
10	국가전망회사 (国家电网公司)	143.9	44.9
11	안산강철그룹 (鞍山钢铁集团公司)	105.3	-2.8
12	중국해운그룹 (中国海运集团)	100.2	33.4

자료: 국자위 통계평가국

나. 노동비용

□ 12개 대형국유기업의 1인당 연간 노동비용은 최고 12만 위안에 달했으며 이들 기업의

평균적인 노동비용은 6~7만 위안으로 전국 평균의 3~4배에 이릅니다.

- 이윤 서열 1위인 중국석유·천연가스그룹(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)의 경우 2005년 노동비용은 675.8억 위안으로 이는 중국 중부지역에 위치한 허난성(河南省)의 동년 지방재정수입 537.5억 위안보다 많은 액수임.

□ 169개 대형국유기업 가운데 노동비용의 전년대비 증가폭이 매출액의 전년대비 증가폭보다 큰 기업은 72개에 달하고 노동비용이 전년대비 30%이상 증가한 기업도 23개에 이릅니다.

<표 2> 이윤 서열 상위 12개 대형국유기업의 노동비용

순위	기업명칭	직원수 (만 명)	노동비용 (억 위안)	2004년 대비 (%)	1인당 노동비용 (만 위안)
1	중국이동통신그룹 (中国移动通信集团公司)	11.2	136.7	13.6	12.36
2	중국원양운수그룹 (中国远洋运输集团)	7.9	88.7	16.5	11.2
3	보강그룹 (宝钢集团有限公司)	12.4	103.4	-0.5	8.34
4	중국전신그룹 (中国电信集团公司)	40.7	327.4	2.7	8.04
5	중국해운그룹 (中国海运集团)	4.8	36.8	14.5	7.67
6	중국여업회사 (中国铝业公司)	17.3	54.1	17.2	7.41
7	중국해양석유그룹 (中国海洋石油集团)	3.8	25.1	7.1	6.61
8	중국석유·천연가스그룹 (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)	114.01	675.8	22.2	5.92
9	국가전망회사 (国家电网公司)	85.6	505.7	19.8	5.91
10	중국석유화학그룹 (中国石油化工集团公司)	82.2	480.1	2.0	5.85
11	신화그룹 (神华集团有限责任公司)	7.9	37.7	21.0	4.77
12	안산강철그룹 (鞍山钢铁集团公司)	15.6	55.2	22.3	3.54

자료:국자위 통계평가국

- 중국석유·천연가스그룹(中国石油天然气集团公司)의 경우 노동비용은 전년대비 22.2% 증가한 반면 매출액은 전년대비 19.9% 증가

- 중국원양운수그룹(中国远洋运输集团)의 경우에도 노동비용은 전년대비 16.5% 증가한 반면 매출액은 전년대비 9.2% 증가

3. 대형국유기업의 高노동비용 형성 체계

- 현재 대형국유기업의 임금 체계는 기본급과 경영실적(이윤)과 연동되는 상여금으로 구성됨.
 - ‘국자위’는 원래 노동사회보장부에서 관리하던 169개 대형국유기업을 이관 받은 후 이들 기업에 대한 임금제도 개혁을 실시하였음.
 - 169개 기업의 기본급 수준은 각 기업 소재지역의 임금수준과 업종 임금수준 등을 감안하여 ‘국자위’가 2003년에 확정하였음.
 - 대형국유기업의 경영실적이 향상되면 노동비용도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고 있는데, 신화그룹(神华集团有限责任公司)의 해외 상장회사인 중국신화에너지주식회사(中国神华能源股份有限公司)의 경우 2005년 매출액이 33.0% 증가하였고 노동비용 역시 30.8% 증가하였음.
- 국유기업 임원진의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음성수입도 노동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지적됨.
 - 华信惠悦公司(전문 임금조사 외자기업)와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이 작성한 중국 국유기업 임원진의 보수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유기업 임원진의 소득은 비국유기업보다 훨씬 낮는데 비해 과도한 업무추진비와 음성수입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수는 더 높은 수준임.
 - 국유기업 임원진의 업무추진비는 임금의 10~20배에 이르고 일부 음성수입은 국유자산의 착복, 기업소유자(전인민) 이익의 침해라는 점에서 문제시 되고 있음.

- 이에 华信惠悦公司是 미국 기업의 관리방식을 참고하여 국유기업 임원진의 업무추진비 문제를 규범화하고 통제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.

4. 대형 국유기업의 경영성과 평가에서 나타난 문제점

□ 독점적 대형 국유기업의 이윤 독식

- 전체 169개 대형 국유기업 총이윤의 95%를 차지한 40개 기업은 그들의 독점적 지위와 가격우위를 이용하여 독점적인 이윤을 창출해 왔음.
-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운항국 석탄처에 따르면 2005년 석탄 가격은 30.8% 상승하였으며 그 중 발전용 석탄의 가격도 30.9% 상승하였음.
- 이윤 서열 6위인 신화그룹(神华集团有限责任公司)의 이윤이 전년대비 85% 증가한 것은 석탄 가격의 상승 때문임.
- 일부 중국 학자들 사이에는 소득분배체계 개혁의 일환으로 대형 국유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통하여 얻은 이윤의 국가 납부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.

□ 대형 국유기업의 저효율성

- 대량의 사회적 자원이 일부 기업에게 독점적으로 배분되는 것은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 배분에 비해 효율적이지 못함.
- 자산 총액이 11,115.4억 위안에 달하는 국가전망회사(国家电网公司)의 2005년 이윤 총액은 143.9억 위안으로 총자산 수익률이 2.6%에 그침.
- 국가전망회사(国家电网公司)의 2004년 매출액은 전년대비 21.4% 증가하였지만 노동비용도 19.8% 증가하여 원가대비 이윤율은 2.0%에 그쳤으며, 이는 169개 대형국유기업의 평

균수준인 10.4%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.

□ 대형 국유기업의 高노동비용

- 대형 국유기업의 高노동비용 지출에 대해 사회적 비판여론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 기업에 대한 임금삭감 요구가 강화되고 있음.
- 국가전망회사(国家电网公司) 산하 24개 성시(省市)의 전력회사 관리층의 임금소득이 1/3 감소하였으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독점적 대형 국유기업들은 임금삭감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.
- 대형 국유기업의 높은 복지비용과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이들 기업의 주택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문건(《关于中央企业严格执行国家住房制度改革政策有关问题的通知》)을 발표하였음.
- 또한 국무원은 7월초 “소득분배 양극화 방지”라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, 노동사회보장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게 각각 소득격차에 대한 통계분석과 관련대책 연구를 전담 하도록 하였음.

<참고자료>

《21世纪经济报道》, “豪门盛宴: 央企“十二强”收入调查” 2006.7.12

《中国经营报》, “央企红利: 收入分配改革第一刀?” 2006.7.30

, “电力行业终于迈出了一步。垄断行业降薪“一小步” 2006.7.29